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11월말 외화보유액 2,005억 달러, 8개월째 감소

- 한국은행은 2008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2005.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전월말 대비 117.4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.
  - 11월중 외환보유액 감소는 운용수익 및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조기해지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경색 지속으로 인해 외환당국이 외화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한 데 따른 것임.
-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긴급시 대외지급수요를 감내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  -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상위 10개국\*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월중 외환보유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 - \* 중국, 일본, 러시아, 대만, 인도, 한국, 브라질, 싱가포르, 홍콩, 독일
- 또한 12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와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그 만큼의 외환보유액 여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.
  - 그동안 큰 폭의 매도를 지속해 온 외국인 주식투자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연속 순매수로 전환되었음.
-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환율이 최대한 시장의 외환수급과 펀더멘털을 반영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, 급격한 쏠림 현상으로 인한 급변동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.

(2008년 11월말 외환보유액-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기획팀, 12/3)